

색상으로 느끼는 감정(2)

8) 색의 선택

(1) 색의 성격

색은 감정, 연상, 실상, 속성 등의 풍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의상과 색을 연결시킬 때 색의 감각을 완전히 이해하면 어울리는 배합 또는 조화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 몇 가지의 색의 표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 흑색 : 매우 풍부한 표정을 갖고 있는 색이다. 채도에 따라서 피부에 어울리게 입으면 멋이 있고 우아하며 지적이다. 또한 흑색은 강하고 무채색이며 수축색이다. 그러한 강점을 잘 사용하면 성숙미와 지성미도 얻을 수 있고 또한 무채색이므로 다른 색과 잘 어울린다. 흑색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색은 황금색이며 빨강이나 자주색도 고상한미를 나타낸다. 수축색인 흑색은 입는 사람을 작게 보이게 한다. 이렇게 색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며 색깔 자체를 복식에 응용할 때 색체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백색 : 적용하기에 따라서 사치스럽거나 초라해 보이는 색이다. 풍부한 생활의 뒷받침과 감각 있는 몸가짐이 백색을 살리는 요점이다. 운동선수나 건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이며 반대인 경우에는 빈약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백색을 입으려면 발달한 몸가짐이 필요하다.

③ 회색 : 차분하고 신중한 색이다.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는 회색은 쓰기에 편리한 색이다. 또한 회색은 훌륭하거나 초라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색이나 다른 환경에 잘 어울리므로 무난한 색이다. 은회색은 밝고 사치스러워 보이며 싫증이 나지 않는 색이다. 또 회색은 다른색과 배색이 잘 도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④ 갈색 : 건강한 색이며 풍성한 낭만의 계절을 연상시키는 색이다. 명고

가 높은 갈색에서 채도가 높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한다. 외출복이나 여행복 등에 많이 이용되는 색이다.

⑤ 황갈색 : 백색과 배색이 잘 되며 다른 색과의 배색에도 무난한 색이다. 특히 짙은 갈색, 녹색, 보라 등에 잘 맞고 연보라, 연녹색, 연분홍처럼 연한 색에는 강한 액센트를 주어야 어울린다.

⑥ 황색 : 태양의 색, 젊고 희망에 찬 색, 명랑하고 쾌활하며 눈에 잘 띄는 색이다. 황색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채도와 명도에 따라서 색의 배합방법도 다양해진다. 또한 황색은 젊고 밝은 색이지만 특히 피부색과 관계가 깊어서 검고 창백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황인종인 동양인에게는 대체로 어울리지 않는 색이다. 그러나 다른 색으로 액센트를 주어 강조시키면 어울릴 수가 있다.

⑦ 오렌지색 : 황색보다 더 강하고 대담한 색이다. 햇볕에 탄 피부나 여름의 바닷가처럼 강한 광선이 있는 환경에서는 어울리나 보통 환경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색이다. 이러한 색과 잘 맞는 색은 갈색 계통의 색깔이며 오렌지색 그 자체보다 액센트용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다.

⑧ 빨강색 : 정열의 색, 가장 눈에 잘 띄는 색, 풍부한 변화를 갖고 있는 색이다. 선명한 빨강색은 명랑하고 젊은 색이며 팽창색이므로 젊고 아담한 체격에 잘 어울린다. 또한 난색계이므로 코트, 스웨터 등에 사용되고 깊이가 있어 보이는 색이다.

⑨ 분홍색 : 귀엽고 어린 색으로 젊고 피부가 흰 사람에게 어울린다. 그러므로 유아복이나 소녀들에게 어울리는 색이다. 또 이 색은 특히 회색과 배합이 잘 되며 흑, 청, 녹, 자주, 갈색하고도 조화가 되는 색이다.

⑩ 녹색 : 대자연의 색, 봄의 색, 희망, 성장 등을 상징하는 색이다. 밝은 녹색은 봄과 초여름까지를 나타내고 모스그린(늪의 이끼색)처럼 짙은 초가을

의 색깔이다. 민족에 따라서 연한 녹색이나 진한 녹색을 좋아하기도 한다. 녹색은 다른 색과 배색도 하지만 녹색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⑪ 청색 : 하늘색, 바다색 등 조용하고 깊이 있는 색이며 품위 있고 이지적이다. 또한 흑색이 지닌 표정을 갖고 있는 색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적이고 신뢰감이 있는 색으로 여기고 동양에서는 흑색과 더불어 불기한 색으로 여긴다. 청색은 진한 청색, 연청색 등 폭이 넓고 용도도 다양하다. 특히 연청색은 아름다운 색의 하나로 검은 머리, 흰 피부에 잘 어울린다. 진한 청색과 잘 맞는 색으로 백색, 회색, 황갈색이 있으며 어떤 색과도 배색이 쉽다.

⑫ 감색 : 제복으로 널리 사용하는 색이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다.

⑬ 보라색 : 고귀하고 신비하며 우아하고 지적인 색이다. 중년 이상이 잘 사용하면 우아하게 보이는 색인데 반대일 경우는 우울하게 보인다. 보라와 가장 잘 맞는 색은 백색이며 황금색, 황갈색, 은회색, 연청색, 분홍색 등과도 잘 맞는다.

⑭ 유행색 : 이 색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때 그때의 유행색이 있다. 유행색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색과의 배합이 바람직하다.

(2) 색의 선택

색은 시각적 품질의 일종이며 의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무언의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화장을 할 때 피부를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예뻐 보이려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된다. 또한 음식물을 먹은 후 인체에 얼마의 영양가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맛의 유무로 표현한다. 이렇듯이 좋은 느낌을 주는 색의 선택과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정확한 목적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 즉 제품, 용도, 환경 등에 의해 착용자에게 적합한 색채를 선택하되 개성에 유의해야 한다.

* 연령에 따른 색의 선택

① 아동의 색 : 아이가 자라서 점점 개성이 나타나면서 어울리는 색이 달라진다. 그러나 귀여운 느낌을 주는 색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색으로는 베이비 블루, 베이비 핑크, 각 낡은 병아리의 색처럼 밝은 노랑색으로 연한 색이 좋다.

② 십대의 색 : 귀엽고 젊음이 넘치는 색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여움만 표현되어 있다면 빨강, 노랑, 청색 등 무엇이든 좋다. 부드럽고 채도가 높을수록 귀여운 색이 된다. 주로 장미색, 밝은 녹색, 분홍, 청색 등을 사용한다.

③ 이십대의 색 :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이므로 어른다운 느낌이 풍기는 색이 좋다. 중간 명도나 중간 채도를 사용하여 밝은 색의 배색으로 화려함을 나타내고 암색과 배합으로 침착한 맛을 주면 더욱 좋다. 비슷한 색깔의 배색은 피하고 황갈색, 황록색, 진한 청색 등을 주로 사용한다.

④ 삼십대의 색 : 이 연령이 되면 비판력이 있고 개성이 뚜렷해지며 아직도 젊음이 있으므로 발랄한 색이 좋다. 예를 들면 심홍색, 밝은 회색, 연청색, 황갈색, 진한 녹색 등이다.

⑤ 사십대의 색 : 사람에 따라서 젊거나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완성된 개성과 감각을 가지는 시기이므로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 택하는 것이 좋다. 명도와 채도가 낮으면 여성다운 얌전함과 남성다운 든직한 침착성을 갖게 하여 안정감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회청색, 은빛 나는 회색, 진한 적갈색, 녹색, 갈색 등이다.

⑥ 오십대 후반의 색 : 컬러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노신사·숙녀의 색깔에 대해 단적으로 특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젊음과 숙련미를 모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색채미의 과제이다. 이 시기는 젊은 시절에서부터 동반하여 온

색채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할 때이다.

* 체형에 따른 색의 선택

① 마른 사람 : 노랑, 오렌지, 장미와 같이 연한 난색 계통인 핑창색을 사용하여 크게 보이는 것이 좋다. 빨강이나 진한 색을 사용할 때는 지질의 문양도 고려하여 굵직한 무늬를 사용하던가 볼륨이 있는 디자인을 하면 더욱 좋다.

② 뚱뚱한 사람 : 감색, 청록색 등과 같이 수축되어 보이는 진한 한색 계통을 사용한다. 마른 사람과는 반대로 연한 색을 사용할 때는 옷의 일부에 액센트를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재질의 문양도 가는 것을 사용하며 허리에 진한 색을 사용하여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거나 목 부분에 진한 줄을 넣어서 전체에 조이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날씬하게 보이도록 한다.

③ 평범한 사람 : 별로 특징이 없는 보통형의 사람은 회색을 중심으로 배색하고 낮은 채도와 중간 명도의 색을 택한다.

④ 개성적인 사람 : 개성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반대되는 색을 골라 배색을 하거나 개성이 있는 신체의 어느 부분을 컬러나 디자인으로 부각시킨다.

⑤ 활동적인 사람 : 명도나 채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주도록 하되 옷의 종류나 장소에 따라서 색깔의 선택을 달리한다.

⑥ 여성적인 사람 : 은순한 형의 사람은 품위가 있고 얌전하게 보이도록 명도가 높아도 채도가 낮은 것이 좋다.

⑦ 기타 체형 : 얼굴형으로 보아서 네모형, 세모형, 달걀형 등 여러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색의 선택보다도 재질의 문양이나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네모형의 얼굴에는 둥근 모양의 목선을, 둥근형에는 보폭한

칼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피부색에 따른 색의 선택

① 얼굴에 약간 핏기가 있고 흰 사람 : 연한 색으로 녹색, 보라색, 분홍색 등이 어울린다.

② 검은 사람 : 진한 감색, 갈색 등이 어울린다.

③ 창백한 사람 : 장미색, 크림색, 흰색을 띤 황록색 등이 어울린다.

④ 누런 사람 : 흰색을 띤 청색, 포도색 등이 어울린다.

⑤ 핏기가 없고 검은 사람 : 진한 녹색, 황갈색 등이 어울린다.

이상의 예는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화장술로 인하여 느끼는 인상이나 타입도 중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갈색 옷감에도 맛이 있고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것과 천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맛이 있고 깊어 보이는 옷감에는 마무리가 잘되어 있다. 갈색의 무지를 느끼는 옷감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백색직물을 염료 용액에 넣어 천의 표리를 똑같이 물들인다. 이것을 필염이라고 하고 후염 옷감을 만드는 방법이다.

② 양모 상태로 염액에 넣어 염색하여(원모염색) 실로 자아 제작하여 무지의 옷감으로 한다.

③ 톱(top, 양모와 실의 중간제품) 상태로 염료 용액에 넣어 염색(top dyeing 이라고 한다)하고 나서 실로 자아 제작하여 무지의 옷감으로 만든다.

④ 백색의 실을 염료 용액에 넣어서 염색하여(사염이라고 한다) 이 실로 제작하여 무지 색상의 옷감을 만든다.

②~④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을 선염 옷감이라고 한다. 품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선염 옷감이다. 상강, 멜란지라고 부르는 맛이 깊은 색상을 갖는 옷감은 서로 다른 양모 또는 톱을 혼합하여 언뜻 보아 갈색을 느끼는 제작

사(상강사, 멜란지사)를 만들어 이것을 사용하여 짠것이다. 멜란지조로 보이는 목(초)이라고 부르는 옷감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색상이 다른 실(예를 들면, 백색과 검정색)을 꼬아 합하여 1올의 제직사를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여 제직한 것이다. 모두 노력과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고품질, 고가격의 만드는 방법이다.

그레이나 흑색의 보색은 빨강이다. 빨강과 검정의 조합은 하드한 느낌이 있다. 이러한 보색 관계인 흑색복종과 빨간색 복종의 옷감이 다른 소재로써 텍스처가 다른 것을 조합하여 멋 부릴 수 있다. 빨강에는 진빨강도 있고 오렌지색을 느끼는 스칼렛트라던가 적자를 느끼는 카마인 등의 3봉류가 있다. 빨강은 따뜻한 색이라고는 하지만 카마인과 같은 차갑고 시원스런 빨강도 있다.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스칼렛트의 빨강이다. 따라서 어떤 빨강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 빨강은 도시적인 세련미를 지니고 있다. 빨강과 검정과 조합은 바이오렌스의 분위기가 된다. 빨강은 파우어풀하기 때문에 블루종의 소맷부리나 칼라, 밑단 등에 덧댄 빨강 셔츠. 재킷이라던가 블래저의 열린 앞단에 보이는 빨강 스웨터라던가 조끼, 벨트, 길이가 짧은 스커트라던가 팬츠에 빨강 타이츠, 짧은 코트에 빨강 팬츠라고 하는 착용법을 키포인트로 한다. 작은 관심으로도 멋 부릴 수 있는 것이 빨강의 성격이다.

크리스마스 세일에는 빨강·녹색·금색이 매장에서 눈에 띄게 된다. 빨강도 녹색도 금색도 그러한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여러 개의 별이라던가 종, 그리고 하얀 솜털의 눈으로 덮여 있다. 벙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흐르기도 하면 기분은 크리스마스가 되어 버린다. 빨강·녹색·금색의 꽃의 색상을 내추럴칼라라고 하고 모래나 흙의 색상도 여기에 가해지면 눈의 흰색도 내추럴칼라라고 하여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백색은 여름철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백색의 겨울철의 색이라고 하여도 좋다. 거무스름한 색(blackish)이라던가 어두운 색(dark color) · 빨강 · 녹색 등이 거리에 범람하는 가운데 흰색은 눈에 띄고 우수한 백색에는 빛나는 백색도 있으면 근소한 색 맛을 느끼는 옴화이트도 있다. 텍스춰에 의하여 백색이 보이는 방법이 바뀐다. 섬유소재라던가 텍스춰가 다른 복종과의 이소재를 조합시킴에 의한 흰색의 변화는 겨울철을 상쾌하게, 따뜻하게 해준다. 물론 그레이와의 조합도 예쁘다. 이렇게 되면 모노 톤의 기분도 생긴다.

흰색 · 그레이 · 검정 또는 검정과 그레이를 조합시키는 것을 모노 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모노 톤의 배색은 대체로 여성에게 알맞다. 그것으로 오늘은 무엇을 입을 까라고 머리를 쓰는 일로부터 해방된다. 모노 톤의 배색은 베이직한 형으로 오늘날 극히 대중적인 것이다. 모노 톤으로 입을 것을 정리할 때 어울려 입는 각 아이템의 텍스춰에 차이를 두기도 하고 섬유의 종류를 달리하면 풍요로운 감이 생긴다. 이렇게 차이를 크게 두어도 모노 톤이 좋은 경우이다. 차이를 크게 하는 쪽이 멋내기이다.

예를 들면 붉은 모사로 매끈하게 편성된 스웨터에 고아택이 있는 레저 미니 스커트, 그리고 스타킹을 입은 모양이다. 이러한 경우 검정 단색의 모노 크로마틱도 매력적이다. 모노 톤이나 모노 크로마틱은 무늬와 무지물 · 무늬와 무늬(패턴 은 패턴이라고도 한다. 다른 무늬와 다른 무늬를 조합시켜서 입는 일)의 경우에도 극히 유효하다. 모노 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흰색 · 그레이 · 검정 또는 그레이와 검정의 배색이지만 진 갈색 · 갈색 · 베이지의 배색도 이러한 종류이다. 이러한 2가지 배색의 형은 양모사 혼방사 · 프로스트양 · 프로스트양을 혼색한 것도 있다. (야말화지(野末和志))